

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안드로이드



아이폰



보도시점: 2025. 9. 2.(화) 15:00 배포: 2025. 9. 2.(화) 08:30

“불합리한 규제에 인력난까지”... 반도체 소·부·장 기업의 어려움, 현장에서 확인

- 국민권익위, 오늘(2일) 충청남도 소재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을
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오늘(2일) 충남 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에서 충청남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(이하 소부장)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,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.

□ 충청남도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. 이번 회의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인 충청남도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력난 등 다양한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,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▲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, ▲정부 R&D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, ▲중소기업의 자체 장비 확보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, ▲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유해화학물질 생산 제한 규제 완화, ▲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개편 등을 건의하였다.

-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.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“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.”라며, “이번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, 앞으로도 기업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현장고충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근용 (044-200-7831)
		담당자	사무관	장대근 (044-200-7836)



□ **추진목적**

- AI시대 핵심분야인 반도체의 제조 근간에 해당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을 찾아가 기업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
- 경영 애로사항 청취 후 고충민원으로 접수 및 제도개선 검토

※ '25년 회의 개최: 5회[1.22. 천안(포장업), 2.25. 오송(바이오), 4.14. 인천(해운업), 7.8. 대구(로봇부품), 7.23. 경기(기후테크)]

□ **일시 및 장소**

- 일 시: 2025. 9. 2.(화) 13:30 ~ 15:00(90분)
- 장 소: 충남테크노파크 회의실 *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
- 주재자: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
- 주요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3:30~13:35	5'	◦ 개회, 참석자 소개	사회자
13:35~13:40	5'	◦ 인사말씀(회의취지)	주재자
13:40~14:50	70'	◦ 기업인 고충 및 애로 청취와 답변	참석자
14:50~14:55	5'	◦ 마무리말씀	주재자
14:55~15:00	5'	◦ 폐회 및 기념촬영	사회자, 참석자

□ **참석자(19명)**

- 기 업(11개):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대표
- 유관기관(7개): 산업통상자원부,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충남도청, 충남테크노파크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업무담당자